

##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 중 말씀

정책이 좋아야 효과가 나고 성공할 수 있다

각계 지도자 여러분 함께 자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 개발 과정의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 밖에 사회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일을 해준 분도 함께 있습니다. 조금 불안정 한 게 노사문제인데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책이 좋아야 효과가 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정책도 중요하나 정책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잘되는 일을 더 잘되게 하는 것 보다 어려운 일을 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애당초 정책 환경이 나쁜데서 출발해서 더욱 힘겹습니다.

그러나 꼭 성공시켜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면 정책 생산 채택과정에서 좋은 지혜가 많이 모이고 공감대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믿지 않고 힘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나빠도 힘을 합하면 됩니다. 정부정책의 모범을 만드는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혜를 모아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뜻 깊게 생각됩니다. 노동계 일각과 정계 일각에서 참석 못해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대세를 이루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중과 양보를 통한 사회협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좋은 대책과 사례발표,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정책당국은 오늘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유한킴벌리 사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일부 문제제기도 있으나 분명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보편성 여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노사 양측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경동도 시가스 사례도 훌륭했습니다. 끊임없이 노사가 서로 요구를 제기하지만,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것인지 고심하고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있으면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면 신뢰가 구축되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부정해야 할 구조가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온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중이라 일사불란하지도 않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아직도 부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일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불신과 대립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렇게 사회협약을 이루어낸 것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인내했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사회협약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상호존중, 또 공존하는 자세를 발휘하는 등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과거 도움을

받았던 방식 그대로 간다면 지원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북아 경제중심, 2만 달러 시대 등과 관련해서 상호 관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도 기존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사회 협약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성과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사회협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방향으로 모두 매진해 주기를 희망합니다.